

다키 렌타로

일본의 근대 음악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지닌 작곡가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다키 렌타로(瀧廉太郎, 1879-1903)는 일본인 최초로 서양 음악 기법을 사용해 작곡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은 지금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태어난 다키 렌타로는 유소년기에 아버지가 관공서에 근무했기에 이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버지가 오늘날 다케타시에 해당하는 지역의 군수로 임명된 일은 그의 인생에 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마을에서 보낸 12 세부터 15 세까지 2년 반 동안 렌타로는 학교에서 피아노를 배웠으며, 그 학교 근처에 있던 오카 성터가 렌타로의 대표작 중 하나인 '황성의 달'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01년에 도쿄 음악학교를 졸업한 렌타로는 이후 바로 독일의 라이프치히에서 유학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심한 결핵을 앓아 겨우 1년 만에 귀국했습니다. 귀국 후 불과 23세의 젊은 나이로 인생의 막을 내릴 때까지 렌타로는 말년을 오이타시에서 보냈습니다.

작곡에 서양 스타일을 도입한 렌타로는 일본 음악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100년 이상에 걸쳐 학교 교과서에 게재된 '황성의 달'뿐만 아니라 '오쇼가쓰(정월)'와 '하나(꽃)'와 같은 곡은 지금도 사랑받고 있습니다.